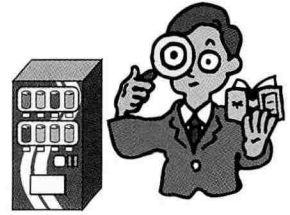


한태만상, 자판기 세상 속으로



지하철 자판기 임차인 운영 7% 뿐



장애인 등에게 운영권을 우선 부여하는 서울 지하철역 자동판매기의 93%가 전문업체의 손에 넘어가 편법 운영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최근 지하철 263개 역의 자판기 431곳에 대한 임대계약을 감사한 결과, 전체의 93%인 401곳을 전문업체에서 편법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난 7월 18일 밝혔다.

전문업체는 임차인 대부분이 중증 장애인이고, 임차인이 종업원을 둘 수 있는 규정을 악용해 불법계약에 동의한 임차인이 고용한 종업원으로 위장했다. 임차인 431명 가운데 395명(92%)은 장애인·노인이고 36명(8%)은 모자가정의 여성이다. 그러나 운영권을 따낸 임차인이 실제로 자판기를 운영하는 곳은 30곳(7%)에 불과하고 나머지 401곳(93%)은 M사 등 전문업체 11개가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문업체들은 규정을 교묘하게 이용, 가정형편이 어려운 임차인에게 한 달에 5만~10



▲ 본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 없습니다.

만원만 건네주고 실제 운영권을 행사하면서 많은 수익금을 챙기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업체들은 3년에 한번씩 진행되는 자판기 임대사업자 공고 때부터 장애인 등을 설득해 신청서류를 매집하고 서류 접수 등을 대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신문·복권 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판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를 곧 개정, 운영 능력이 없는 임차인이라면 영업을 서울메트로·도시철도공사에 위탁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찾기로 했다. 또 현행 1·2등급으로 제한된 장애등급을 3~5등급으로 임차인 자격을 확대해 자활 의지가 강한 임차인을 실제 운영자로 선정하는 방안 등도 다음 임대사업자 공고 때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임대계약은 서울메트로 2008년, 도시철도공사는 2009년에 끝난다.

자판기 운영권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로서 장애 1·2등급, 모자가정의 여성, 독립유공자 유가족 등을 우선대상으로 전자추첨을 통해 부여된다.

서울지하철 역사내 음료용 자판기 운영관리 개선대책

서울시에서는 2007년 상반기 지하철 역사내 자판기 임대사업과 관련 263개 역사 431개소의 계약건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구조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운영·관리실태에 대하여 개선대책을 마련하였다.



자판기 임대 관련규정 내용

지하철 역사내 자판기 사업은「서울특별시공공시설내 의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에 의거 장애인 등에게 우선하여 임대토록 되어 있는 시설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로서 장애1,2등급, 65세이상 노인, 모자가정의 여성, 독립유공자 유가족이 계약1순위임(관련 규정에는 3순위까지 있음)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

- 지하철 양공사에서는 관련규정에 따라 장애인 등을 임대사업에 참여시켜 계약자로 선정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임차인은 거동이 불편한 중증 장애인, 고령자로 본인의 직접 운영이 어려운 현실여건으로 전문업체 개입의 빌미가 되고 있으며 편법 운영함으로써 임차인에게 지급되는 수익금이 적은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임차인 대부분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본 사업을 통한 수익금은 동법 규정에 의거 보장기관에 소득변동을 신고하고 당해 수급액 중 수익금을 차감하여 지급받아야 하나 상당수 임차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었음
- 금번 자판기 운영관리 실태 조사에서 나타난 유형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임대사업 계약자의 세부 유형을 살펴보면 자판기 임대계약자 431명중 395명(92%)가 중증장애인 또는 고령자였으며 모자가정 등이 36명(8%)이었음
- 전문업체는 임차인이 종업원을 둘 수 있다는 임대규정을 이용, 자사 직원을 임차인이 고용한 종업원인 것처럼 편법 승인을 득한 후, 실질적으로 401개소(93%)를 11개 전문업체에서 운영관리하고 있었으며 실제 임차인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곳은 30개소(7%)였음

- 주요 전문업체의 운영·관리 실태는 미래벤딩, 한국복지 등 5개사가 전체의 85%(365개소), 나머지 6개 업체가 8%임
- 또한 자판기에서 발생한 수익금에 대해서 직접 임차인을 방문조사한 결과, 월 5~10여만원을 전문업체로부터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
- 전문업체가 사업초기부터 개입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하여는 임대자 사업공고 3~4개월 전부터 각 지구별 유관단체 등을 통하여 신청서류 매집과 각종 단체 행사시에 후원금 또는 물품을 지원하고, 신청서 접수시 신청자 본인이 직접 접수하여야 하는 양 공사 규정으로 인하여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노인에 대하여는 교통편의 제공 및 행정업무를 대리해 주고 있었음
- 사업참여 동기는 전문업체 및 각종 지역단체를 통한 참여자가 약 96%였으며 본인이 판단하여 참여한 임차인은 4%에 불과하였음
-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조사결과에 따른 문제점 해소를 위해 다음과 같은 운영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근로·운영능력이 없는 임차인이 지하철공사에 영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 수익금에 대한 투명성 확보와 전문업체 개입을 차단, 자판기에 계수기를 부착하여 매출실적이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개선함은 물론 최초 임대사업자 공모시 전문업체가 개입하지 못하도록 관할구청(동사무소)이 대상자를 추천 의뢰함과 동시에 사업취지를 충분히 설명 후 희망자를 추천토록 하였다.

아울러 관련부서에서는 관련규정 개정 등을 통하여 저소득층으로서 자활의지가 강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장애인 등이 가계안정에 실질적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록 개선안을 마련 중에 있다.

충주 터미널에 '쌀 자판기' 설치 추진

충북 충주시가 지역에서 생산된 쌀 판매를 위한 '쌀 자판기' 설치를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지자체가 직접 쌀 자판기 운영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전국에서 처음이다.

시는 오는 9월까지 롯데마트 충주점 또는 시외버스터미널에 친환경 고품질 쌀 무인판매기 1대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충주지역 19개 친환경 벼 재배단지에서 생산된, 인증받은 쌀만 이 자판기를 통해 판매될 예정이다. 쌀은 주부들도 쉽게 들고 갈 수 있는 1~4kg 크기로 포장된다.

시는 일본에서 도입될 예정인 자판기 구입비용 등 4500만원을 투자하며, 운영은 충주시 친환경농업인수도작 연구회가 맡게된다.

이를위해 시는 이달 중 무인판매기 설치장소를 확정하고, 내달에는 무인판매기 운영위원회를 결성해 9월부터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자체가 쌀 자판기 설치, 운영에 나서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친환경 무농약 이상 인증을 획득한 쌀만 판매해 소비자들의 신뢰를 높여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디카·카메라폰 사진 지하철역서도 인화



지하철역에서 디지털카메라나 카메라폰으로 찍은 사진을 인화해 받아볼 수 있게 됐다.

온라인사진관 포토키키는 지하철 무인 포토부스에서 사진인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포토키키는

지난해 11월 지하철 1호선부터 4호선까지 설치된 101개 증명사진 자판기를 인수, 무인 포토부스로 리모델링해 사진인화 서비스를 시작한 것.

고객은 디카나 폰카로 촬영한 사진을 온라인 포토키키 사이트(www.photokiki.com)에 올려 인화 크기를 선택한 후 비용을 결제하고 서울지하철역에 설치된 사진자판기에서 인화 사진을 찾으시면 된다. 고객은 사진을 찾아갈 지하철역을 자신이 편한 곳으로 선택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고객이 직접 사진을 찾아가기 때문에 배송비가 따로 들지 않는다.

통계청 발표, 자판기 운영업 퇴조

24시간 영업하는 체인화 편의점과 대형 할인매장이 늘면서 주택가의 구멍가게는 4년만에 1만1천개가 문을 닫았다. 또 인터넷서비스의 확대로 전자상거래업체는 4년만에 2배로 급증했으며 자동판매기 운영업은 퇴조를 보이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05년 기준 서비스업총조사 결과'로 본 소매업과 숙박·음식점, 사업서비스업의 구조변화' 결과에 따르면 종합소매업의 경우 체인화 편의점은 2001년 4천116개에서 2005년 1만34개로 4년만에 143.8%(5천918개) 증가했고 같은 기간 대형할인매장도 238개에서 316개로 32.8%(78개) 늘었다.

이에 반해 주택가 근처에 많았던 음식료품 위주의 종합소매업체(구멍가게)는 10만7천365개에서 10.6%(1만1천398개) 감소한 9만5천967개를 기록했다.

음식료품을 파는 소매업체의 경우 기타식품 소매업체만 빼고 모두 줄었다. 이 중 빵·과자를 파는 소매업체수의 감소율이 32.3%로 가장 컸으며 쌀가게 등 곡물소매업체(26.7%), 정육점(15.6%), 담배가게(2.6%) 등의 순이었다.



통신매체의 발달에 따라 무점포소매업체의 판도도 변했다. 전자상거래업체는 4년만에 107.7% 늘었고 매출액도 91.1% 급증했으며 홈쇼핑 등 기타통신판매업체의 매출액은 무려 225.5% 늘었다. 반면 자동판매기운영업은 업체수가 20.6% 줄었고 매출액도 50.9% 감소했다.

일반음식점은 구내식당과 한식당이 각각 36.1%, 11.4% 늘어난 반면 양식당은 24.9% 줄었고 중식당과 일식당도 각각 8.8%, 9.1% 감소했다.

또 기타음식점업 가운데 피자·햄버거·치킨 전문점이 26% 늘었고 분식·김밥전문점 역시 6.3% 증가했다.

술집의 경우 일반유흥주점업은 9.2% 줄었으나 무도유흥주점은 54.8% 늘었고 체과점과 찻집은 각각 25.8%, 24.6% 감소한 반면 찻집 가운데 종사자 규모가 10~49명인 스타벅스 등의 사업체는 64.3% 증가했다. 숙박업은 주5일 근무제 등에 따라 레저활동이 늘면서 휴양콘도(66.7%)와 청소년수련원(29.6%), 펜션 등 기타관광숙박시설(66.3%)이 대폭 늘어났지만 호텔은 내국인의 해외여행 증가 등에 따라 업체수는 4.5% 감소하고 매출액도 16.6% 줄었다.

김문수 경기지사, '양심쓰레기봉투 자판기 공원 설치' 공약 철회

단체장이 취임한 지 불과 1년이지만 각 시도에서 이처럼 '포기한 공약'들이 나오고 있다.

김문수 경기지사가 지난해 선거 때 내건 공약에는 '양심쓰레기봉투 자판기 공원 설치' 사업이 있다. 도내 공원이나 산, 강에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판매하는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이 판매기 설치와 운영은 민간업체 입찰을 통해 선정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김 지사는 지방선거 이후 이 공약을 철회했다.

자판기 제작단가가 대당 500만원으로 예상보다 비싼데 비해 쓰레기봉투는 20L들이 봉투를 한 달에 1만장 팔더라도 이윤이 40만 원에 불과해 수익성이 없다는 게 그 이유였다.

김미려 출연, 노래방조명자판기 불법 다단계 광고출현 구설수



개그우먼 김미려가 찍은 CF의 회사들이 잇달아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김미려는 올해 대부업체와 노래방 조명기기 회사 등 두 편의 TV광고에 출연했다. 문제는 이들

업체가 각각 고금리 대부업과 불법 다단계 사기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것.

연초 출연했던 노래방 기기 회사도 최근 불법 다단계 업체로 드러났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13일 노래방 조명 자판기를 사면 수백 여만원을 되돌려 준다고 속여 1000억 원 이상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불법 다단계업체 B사 대표이사 조모(47)씨 등 2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사는 3000여명으로부터 130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업체는 MBC 코미디 프로 '개그야'의 '사모님' 코너로 인기를 얻고있던 김미려와 김철민을 내세운 TV광고를 올초부터 내보냈다.

【부산/경남】 공공기관 자판기 대부분 비공개선정

경남도내 20개 시군이 대부분 '공공기관 내 자동판매기 및 매점의 우선 계약'과 관련된 법률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동당 경남도당이 3월부터 도내 20개 시군(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사무소 포함)의 자동판

매기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 466대 중 장애인 등에게 운영을 맡긴 곳은 전체의 6.4%인 30대에 불과했다.

나머지 자동판매기는 직원 상조회와 자율회, 구내식당 관계자 등이 운영하고 있었다. 운영권의 결정도 417대는 비공개 선정이었고 49대만 입찰을 거쳤다. 공공시설 내 자판기 운영권을 장애인, 노인, 독립유공자 등에게 우선 배려하는 장애인복지법과 노인복지법,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조례를 제정한 곳은 20개 시군 가운데 11곳으로 조사됐다. 진주시와 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거제시, 의령군, 창녕군, 거창군 등 9개 시군은 아직 조례를 만들지 않았다.

서울시 청사 자판기 종이컵 1달 소모량 '13m 나무 38그루'

서울시 청사 내에 설치된 자판기에서 한 달간 소모되는 종이컵의 양이 높이 13m, 지름 40cm 크기의 나무 38그루 분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2일 시에 따르면 지난 1~5월간 시청 본관과 별관에 설치된 커피자판기 33대에서 사용된 종이컵 수량을 집계한 결과, 총 30만여개에 달했다.

이는 높이 13m, 지름 40cm의 나무에서 약 1550개의 종이컵이 만들어지는 점을 감안할 때, 월평균 38그루, 5개월간 190여 그루 분이 사용된 셈.

시는 이 같은 종이컵 사용을 줄이기 위해 지난 달말부터 시청 본관과 별관 1, 2동에 각각 1대씩의 '다회용 컵 사용 자판기'를 설치, 시범 운영 중이다.

<<자판기 관련 사건 사고>>

자판기 전문털이범 검거

전북 전주 완산경찰서는 지난 7월 9일 인적이 뜸한 심야시간에 자판기 안에 있던 현금을 상습적으로 훔

친 정모군(19) 등 2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하고 김모군(19)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달 8일 새벽 2시께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빙상경기장에 설치되어 있던 음료 자판기 4대를 드라이버를 이용해 뜯어내 현금 70여만원을 훔치하는 등 최근까지 45대의 자판기에서 500여만원을 훔친 혐의다. 경찰은 지난 1월 소년원에서 출소한 이들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 중이다.

자판기 통째로 훔쳐 도주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5월 26일 도로변에 설치된 자판기를 통째로 훔쳐 자신들의 화물트럭에 싣고 달아난 윤모씨(30) 등 2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윤씨 등은 지난 5월 26일 새벽 4시께 전주시 평화동 네거리 도로변에 설치돼 있는 커피자판기 1대(시가 300만원 상당)를 자신들의 1t 화물트럭에 싣고 달아난 혐의다.

경비원이 근무처 자판기 털어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자신이 일하는 병원의 자동판매기에서 현금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로 64살 박 모 씨를 붙잡아 조사했다.

박 씨는 지난 2월 18일 광주시 광산구 모 병원에 설치돼 있는 커피·음료 자판기 14대에서 현금 37만 원을 훔치는 등 모두 27차례에 걸쳐 2천7백여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는 자판기들의 보조열쇠를 빼돌렸다가 사람들이 많지 않은 시간을 이용해 2,3일 간격으로 이 같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3만원 이하 소액, 교통카드처럼 결제

카드 긁지 않고도 결제, 본인확인·서명절차 생략



신용카드 결제금액이 3만원 이하인 경우 교통카드처럼 본인확인 절차나 서명 없이도 승인이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은 여신전문금융업 관련 규정을 보완, 3만원 이하 소액결제에 대해 서명이나 비밀번호 입력 없이 매출을 처리하는 No CVM(Cardholder Verification Method) 결제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No CVM이 도입되면 3만원 이하 소액결제는 신용카드를 카드 리더기에 긁지 않고 주변에 갖다 대기만 하면 결제가 이뤄진다.

현재 No CVM 결제는 교통카드 등에서 이미 활용되고 있고 최근에는 영화관과 주차장, 자판기 등에서 일부 부분적으로 도입돼 있다. 해외의 경우 미국(\$25), 말레이시아(\$30), 대만(\$90) 등에서는 이미 No CVM 결제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

금감원은 현행 제도상 가맹점은 카드 매출시 서명대조 또는 비밀번호 입력 등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No CVM은 분실·도난된 카드가 부정사용될 경우 본인 확인절차가 없어 고객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며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카드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회원 또는 가맹점 책임을 입증하는 경우만 예외로 인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No CVM이 도입되면 가맹점은 거래절차가 간소화되고 혼잡한 가맹점 등에서 비밀번호 입력에 따라 발생하는 비밀번호 노출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특히 비접촉식 결제가 가능하고 위·변조 가능성이 낮은 IC카드로의 전환이 빨라질 전망이다.

체온·혈당 체크용 등 기능성 스티커 출원 증가
스티커사진자판기 분야 도입 늘어날 듯

특허청은 최근 단순 홍보용을 탈피한 보안, 미용, 건강관리 기능 등이 첨가된 기능성 스티커의 출원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난 6월 18일 밝혔다.

이와 같은 현상은 인쇄 및 접착 기술 발달에 따라 소형칩이나 방향제 등을 스티커에 집적하여 원하는 기능을 갖는 스티커를 제조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종래의 단순한 팬시용 스티커로는 날로 다양해져 가는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게 된 현실도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 자료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전체 기능성 스티커는 총 164건의 출원이 있었으며 출원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중 내국 출원이 91건으로 55.5%를, 외국 출원이 73건으로 44.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 분야별로 살펴보면 체온이나 혈당 체크 및 전자파를 차폐 할 수 있는 건강관리용 스티커가 65건으로 39.6%, 분장이나 패션문신 등의 미용용 스티커가 42건으로서 25.6%, 폐기물이나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 등 환경제품용 스티커가 28건으로 17.1%, 스케줄관리 기능 등 기타 기능성 관련 스티커가 29건으로 17.7%를 차지하고 있다.

스티커사진 자판기나 패션문신 스티커의 대중화로 인해 스티커 시장의 규모는 더욱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아울러 다양한 기능을 갖춘 기능성 스티커에 대한 연구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DNA 채취용 스티커, 스트레스 체크용 스티커, 위생용 스티커 등 기능성 스티커가 연구, 개발되어 출원되고 있음을 보면 이 분야의 연구, 개발 범위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코카콜라, 자판기 모형 옥외 광고 실시

한국 코카콜라는 젊은 이동족을 겨냥해 출시한 ‘어고



그룹' 페트자판기 모형 옥외광고를 지난 4월말 버스 정류장에 설치했다. 코카-콜라 광고는 자판기의 버튼을 누르면 코크플레이 포인트가 지급되는 것이 특징.

<광고이야기>

놀부-엄지원이 자판기를 만나면



외식문화기업 놀부가 영화배우 엄지원을 모델로 한 새로운 컨셉트의 광고 캠페인을 선보여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해 선보인 '사랑한다면 놀부' 광고가 사랑하는 사람과 보내는 특별한 시간을 놀부와 함께 하자는 메시지를 담았다면 이번 광고는 늘 새로운 일들로 가득한 즐거운 '오늘'을 놀부와 함께 하자는 컨셉트다. 외식업계 광고로서는 드물게 음식을 먹는 장면이 없고 '오늘 같은 날'이라는 컨셉트를 중심으로 기분 좋은 날의 에피소드를 밝은 화면에 담은 게 특징. 첫 장면에서는 엄지원씨가 스포츠카를 타고 시드니의 명소 '하버 브리지'를 배경으로 시원하게 달린다. 이어 보도 옆을 지나가는 소방차의 물세레에 옆 사람은 흠뻑 젖고 주인공은 우산을 접으려던 찰나에 운 좋게 물세레를 피하는 장면을 담았다. 다음 장면에서는 음료수를 마시려고 자판기에 동전을 넣자 음료수와 함께 동전이 와르르 쏟아지는 운 좋은 날을 표현했다. 친구와 마주보며 함박웃음을 짓는 엄지원이 사랑하는 사람과 공항에서 만나 힘껏 포옹하며 행복해 한다. 그날 저녁 그녀는 친구들과 놀부에 모여 즐거운 저녁 식사 시간을 함께 하는 장면으로 마무리된다. 이번 광고 캠페인을 맡은 관계자는 "음식으로서의 놀

부를 넘어서 소비자가 늘 생각나고 가고 싶은, 더 가깝고 기분 좋은 '놀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기획했다"며 "오늘 같은 날이 놀부에 가고 싶은 날이 되기를 바라는 의도를 담았다"고 밝혔다.

美, 콘돔자판기 이용한 광고 논란

미국 최대의 콘돔회사가 제작한 새로운 TV 광고가 두 개의 공중파 방송국에서 불가 판정을 받아 뉴욕타임스가 크게 보도하는 등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6월 18일(현지시간) 콘돔 메이커 트로얀이 신규 제작한 콘돔 광고가 FOX TV와 CBS TV로부터 방영 불가 판정을 받은 사실을 사진과 함께 보도했다.

문제의 광고는 이렇게 시작된다.

'슬집에서 핸드폰을 들고 사람처럼 행동하는 돼지들이 아름다운 여성들을 둘러싸고 작업(?)을 하지만 여의치 않다. 그중 한 마리가 슬금슬금 남자화장실로 가서 자판기 콘돔을 하나 뽑는 순간 갑자기 험담한 남성으로 바뀐다. 그를 본 아름다운 금발의 여성은 환하게 미소지으며 반긴다.'광고가 끝날 즈음 이런 자막이 붙는다. "Evolve. Use a condom everytime.(진화하라. 언제나 콘돔을 사용하라)"섹스 어필의 이미지가 강조된 이 광고는 ABC, NBC 등 4대 공중파 방송과 MTV 등 9개의 케이블방송, 11개의 잡지와 7개의 웹사이트에 이날부터 일제히 올리기로 했으나 Fox와 CBS의 예기치 않은 거절로 마케팅에 차질을 빚게 됐다.

Fox는 거절 사유에 대해 "콘돔 광고는 임신을 막는 것보다 (성병 등)건강상의





이유로 사용하는 게 강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고 CBS는 "광고의 유머는 이해하지만 우리로서는 늦은 밤에 편성하는 것조차 적당치 않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광고를 제작한 캐플런 그룹의 린다 캐플런 CEO는 "콘돔이 은밀한 곳에서 섹스를 원하는 남녀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며 콘돔은 우리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콘돔 광고는 임신을 피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논란을 종종 일으켜 왔다. 트로얀은 이전 광고에서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될 가능성을 막기 위해 콘돔을 사용하자는 캠페인성 분위기를 강조했었다.

올해로 창립 87주년을 맞은 트로얀은 1927년 당시 영국 카운터 뒤에서 은밀히 팔리던 콘돔 판촉을 위해 성병 예방에 콘돔이 필요하다는 광고를 대대적으로 펼쳐 오늘의 기반을 마련했다. 트로얀은 현재 연간 4억1600만달러에 달하는 콘돔 시장의 75%를 점유하고 있다.

美, 전자책 판매 에스프레소 북 머신' 등장

복사나 인쇄가 쉽지 않고 기기간 호환성 문제 등으로 당초 예상보다 시장의 개화가 늦어졌던 전자책(e-Book) 시대가 온오프라인을 연결하는 다양한 기술개발로 조만간 활짝 열릴 전망이다.

국내 전자책 업계에 따르면 주문형 책을 표방해온 미국의 온디맨드북스(OnDemandBooks.com)는 최근 인쇄시간이 5분 내외인 에스프레소 북 머신'이라는 주문형 책 자판기를 선보였다. 전자책(페이퍼백)을 즉시 인쇄할 경우 종이책과 달리 글자의 크기를 개인의 기호에 따라 쉽게 조절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와는 별도로 구글은 전 세계 주요 도서관 자료들을

모두 스캔해 구글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며, 나아가 스캔한 이미지로부터 책의 내용을 추출해 디지털화하는 독일의 오크로푸스' 광학 문자인식 기술에도 투자하고 있다.

아울러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등도 컴퓨터나 전자책용 전용 기기에서 손쉽게 다운로드 방식으로 책을 받아보는 출판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日 정부, 자판기 등 전기제품 저소비전력 강화

일본 정부는 전기제품에 대해 업체 측에 의무화하고 있는 저소비전력 규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지난 5월 14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경제산업성은 지상파 디지털 방송 지원 DVD 리코더에 소비전력 절감을 의무화하는 동시에 이미 각 업체들이 현행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자동판매기와 비데 등에 대해서도 기존보다 높은 절감 목표를 제시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교토의정서 채택에 따라 지난 1998년에 저소비전력법을 개정해 가전·자동차 등을 대상으로 목표 연도까지 소비전력 및 연비 절감을 의무화하는 '톱러니 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현재 대상 제품은 자동차·에어컨·냉장고 등 총 21개 품목이다.

경산성은 DVD 리코더는 지상파 디지털 방송을 지원하지 않는 기종에 대해 2008년까지 소비전력을 2004년 대비 22.4% 줄일 것을 제시한 상태다.

이번 규제 강화에서는 보급 중인 지상파 디지털 지원 리코더를 새로운 대상으로 편입시켰으며 오는 2010년까지 2006년 대비 20.5% 줄일 것도 목표로 설정했다.

또한 자판기는 2012년까지 2005년 대비 33.9%, 비데는 2012년까지 2006년 대비 9.7% 줄일 것을 제시했다.